

평창행 교통편 궁금하면... 'Go 평창' 앱 터치하세요

경기장별 날씨가 철저히 파악
'Go 평창' 등 앱으로 교통·숙박까지
편리·신속한 대중교통 체계 마련

동계올림픽은 '날씨올림픽'이라고 불릴 정도로 기상조건과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개막까지 열흘도 채 남지 않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은 역대 가장 추운 동계올림픽으로 예상되고 있어, 기상 변화에 더욱 이목이 쏠린다.

역대 가장 추웠던 동계올림픽은 영하 11도를 기록했던 1994년 릴레함메르(노르웨이) 대회였다. 그러나 평창의 이번 달 예상 체감온도는 영하 14도 내외로 그 기록을 깰 것으로 보인다. 평창올림픽의 키워드 중 하나가 '추위'로 꼽히는 것도 과언이 아닌 이유다.

이렇듯 역대급 추위가 예고된 평창의 날씨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날씨부터 교통까지 '맞춤형' 정보 제공을 위한 준비를 마친 평창올림픽은 손님맞이만을 기다리고 있다.

◆경기장별 날씨까지... 철저한 예보

기상청은 성공적인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해 맞춤형 기상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 1월 25일 기상청의 발표에 따르면 56명의 동계올림픽 기상지원 과반단을 구성해 각 경기장별 선수·임원·운영



국토의 동서를 가로질러 서울과 강릉을 연결하는 경강선 KTX가 정식 개통한 지난해 12월 22일 오전 지역 관계자와 주민들의 환영 속에 서울발 첫 KTX가 강릉역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에게 맞춤형 기상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신속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조직위원회 내부망과 연계, 대회종합상황실에 기상상황 모니터링 표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달 30일에는 기상항공기를 도입해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강원도 평창과 동해 상공에서 첫 번째 관측 비행도 시행했다. 기온과 습도, 바람 등 기상정보와 구름 입자 크기, 모양 등 물리적 특성을 관측하기 위해서다.

오는 6일에는 추가적인 기상 관측이 시행된다. 그간 기상관측 공백 지역이었던 동해상의 기온, 습도, 바람자료 등 기상

정보들을 올림픽예보관들에게 지원하고 구름특성 관측 자료를 12개국 29개기관이 참여 중인 국제공동연구 프로젝트(IC E-POP2018)에도 제공한다.

◆'Go 평창'으로 편리한 교통·숙박

평창올림픽은 역대 가장 콤팩트한 올림픽으로 꼽힌다. 경기장간 거리가 멀지 않고 기차역과도 근접한 곳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이에 그치지 않고 대중교통 시스템 준비에도 만전을 기했다. 대회를 찾는 이들에게 편리하고 신속한 대중교통을 제공해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대회를 성공적



'Go 평창' 앱 실행 화면. /KT

으로 이끌기 위해서다. 평창대회가 '대중교통 올림픽'으로 불리는 이유다.

경강선 KTX는 이미 개통됐고, 도로 정비도 마쳤다. 서울양양고속도로가 개통됐고 대체국도인 국도 6호선도 왕복 4차로로 확장됐다.

경강선 KTX의 경우 올림픽 기간(2월 10~24일) 동안 하루 51편(인천공항~강릉 16편, 서울~강릉 35편)이 운행되며 소요 시간은 2시간이 채 걸리지 않는다. 버스는 서울 고속터미널, 남부터미널, 동서울터미널 등 출발·도착지가 다양해 이용이 편리하다. 소요시간은 2시간 30분~3시간 내외다.

올림픽 기간 동안 개최지에선 모든 진입 차량에 대해 2부제(홀짝수)를 실시하는 등 교통 통제가 이뤄질 계획이라 자차 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편이 좋다.

이를 위해 각종 셔틀버스, 교통 연계 수단 등이 제공될 예정이며, 보다 편리한 이용을 위해 'Go(고) 평창' 애플리케이션(앱)도 개발됐다.

'고 평창' 앱을 사용하면 쉽고 빠르게 목적지를 찾을 수 있다. 터치만으로 경로 검색이 가능하고, 이동거리와 교통수단, 소요금액 등 이동 방안도 제공된다. 차량 내비게이션 기능도 있으며 시외·고속버스, KTX 예약앱, 카셰어링앱과도 연동된다.

평창올림픽 공식 앱도 있다. 지난해 11월 1일 '성화봉송 모드' 버전으로 론칭된 공식 앱은 업데이트를 거쳐 '올림픽 모드'로 전환됐다.

'올림픽 모드'는 관중에게 필요한 정보를 중점적으로 제공한다. 대회를 직접 찾는 이들을 위해 경기 일정 및 경기장 소개, 대회 정보는 물론, 숙박과 교통, 관광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오는 29일에는 또 한 번 업그레이드를 거쳐 경기 결과, 메달 집계, 실시간 경기 뉴스, 선수 정보 등 대회 핵심 정보도 제공될 예정이다.

/김민서 기자 min0812@metroseoul.co.kr

“속도보단 방향이 중요... 함께하는 사람이 소중한해”

스타인터뷰

영화 '염력'

류승룡

배우 류승룡이 3년이라는 공백기를 깨고 영화 '염력'(연상호)으로 관객을 만난다.

영화 '내 아내의 모든 것' 7번방의 선물 '명량' 등으로 총무로 부지런히 누빈 그가 잠시 주춤했던 사이 그에게는 '인성 논란'이라는 꼬리표까지 따라붙었다. 류승룡은 개의치 않고, 묵묵히 본인의 길을 갔다. '일회일비'하지 않는 것. 류승룡은 그런 사람이다.

"한국형 토종 히어로물이라는 게 처음 해보는 장르니까 호기심이 많았죠. 연상호 감독님의 기발한 상상력(초능력)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끝난 점은 권력과 부를 가진 자들의 부당함에 맞서는 소시민이 주인공이라는 게 매력적이었죠. 초능력이 생긴 주인공이 부당한 이들과 맞서는 데서 오는 카타르시스가 관객에게 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난 31일 개봉한 '염력'은 갑자기 초

능력이 생긴 아빠 석헌(류승룡)과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빠진 딸 루미(심은경)가 세상에 맞서 상상 초월 능력을 펼치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개봉 첫날 26만 4659명 관객을 동원하는 폭발적 위력으로 박스오피스 1위에 등극했다.

마블이나 D.C의 히어로물을 보면 멋진 의상을 입고 세상을 구하지만, '염력' 속 주인공 석헌은 혈령한 추리닝을 입고 하늘을 날아다닌다. 심지어 능력이 몸에 익지 않아 이 건물, 저 건물 부딪히면서 날아다닌다.

류승룡은 "평범한 소시민의 웃음과 희망을 응원하는 영화다. 만약 주인공이 국방부에서 일하는 누군가였다면, 다른 데에 썼겠지만, 주인공이 석헌이기 때문에 생계형 초능력일 수밖에 없던 것"이라며 "석헌은 위험에 처한 딸을 구하는데 초능력을 발휘한다. 지구를 지키지는 않았지만 분명 이 사람한테는 커다란



'염력'으로 3년만에 스크린 컴백 초능력을 쓰는 철부지 아빠 역 시대와 세월을 담은 배우될 것

일일 것"이라고 영화가 가진 메시지를 전했다.

초능력을 소재로 한 영화답게 관객이 봤을 때는 감탄과 탄성이 나오겠지만, 사실 촬영하는 배우들은 연기에 몰입하기 힘들 정도로 웃음 터지는 일도 많았다.

류승룡은 "날아다니는 장면만 와이어 액션이었고, 나머지 장면은 특수효과 소품에 낚시줄을 연결해서 직접했다. 봉고차가 끌려가는 것도, 넥타이가 뱀처럼 움직이는 것도 다 제작진이 직접 한 것"이라며 "극 중 초능력을 이용해 라이터를 잡는 한 장면을 위해 조감독님이 라이터를 30번이나 던져줬다. 발이 공중에 뜨는 장면은 철봉에 올라서서 찍었다"고 비하인드 에피소드를 전했다.

영화 '불신지옥' 때부터 네 작품에 함께 출연한 심은경에 대해서는 삼촌-조카같은 사이라며 굳이 대화가 필요없이 연기를 통해 많은 느낌을 교감했다고, 상대 배우의 연기력을 극찬했다.

류승룡은 3년 만의 스크린 컴백이 설레고 긴장된다고 솔직한 심정을 밝혔다. 이어 오랜만에 작품으로 관객을 만나지만, 사실은 쉬지않고 촬영 중이었음

도 덧붙였다.

"'염력' 촬영 전까지는 '7년의 밤' 촬영에 매진했죠. '7년의 밤'같은 경우는 제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초고를 받은 작품이에요. 그 아들이 올해 중학생이 됐고요. 오랜 기간 공들인 작품이라 아직도 제 기억에 생생하죠. 그 작품도 3월에 개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웃음) 그리고 글로벌 동영상 플랫폼 넷플릭스에서 제작하는 드라마 '킹덤'도 준비 중이고요."

장르를 가리지 않고, 배우로서 앞만 보고 달린 류승룡은 '염력'을 촬영하면서 깨달은 점도 있다. 촬영 기간도 소중한 인생 중 일부라는 것. 그래서 매 촬영 때마다 '행복하고 재미있게 하자'라고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었다고.

"정신없이 앞만 보고, 쉼없이 작품을 하다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속도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더 중요하다. 나는 지금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 것인

가?' 공백기간 동안 속도를 내느라고 미처 돌리지 못했던 것들을 신경쓰게 됐죠. 제 안에 따뜻한 마음이 넘쳐야 그것들을 타인과 나눌 수 있는 건데, 사실 그동안 저 스스로 공허하다고 느껴왔거든요. 뒤돌아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동료 배우들이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 웃자고 한 발언('뜨니 변했다')이 류승룡에게 '인성 논란'이라는 꼬리표를 선물한 것에 대해서는 "굳이 해명하고 싶지 않았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한 말인데, 그걸 꼭 해명했어야 했나 싶다"고 솔직하게 대답했다.

"영화를 만드는 게 사람들이 함께 나누는 작업이잖아? 사람이 무엇보다 소중한데, 지금도 예전에 만나 공연했던 분들도 만나고, 예능에 출연했던 동료 배우들과도 연락 잘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웃음) 밀고, 당겨주는 배우가 되고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작품에

시대를 담아내고 세월을 그려내는 배우가 되고 싶고요."

/신원선 기자 tree6834@사친/프레인TPC



오늘의 날씨

2월 2일

음력: 12월 17일

수도권 날씨

-7 ~ 3°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연천 -13/2

동두천 -12/4

가평 -12/3

파주 -12/3

서울 -7/3

양평 -10/4

인천 -6/1

수원 -8/2

용인 -8/2

평택 -9/4

백령도 -4/1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